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우리는 성경학교는 왜 하는 걸까요?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사사기 내용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손 얘기로 시작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밥 먹고 글씨 쓸 때 쓰는 손을 번쩍 들어 보세요. 오른손이 많네요! 왼손인 친구도 있어요? 반가워요!

이제 그 손 말고, 반대쪽 손을 들어 보세요. 잘 안 쓰는 손이요. 그 손으로, 공중에다가 크~게 자기 이름을 써 볼 거예요. 준비... 시작!

어때요, 잘 써져요? 이상하죠? 뽀뽀뽀하죠? 팔이 말을 안 듣죠? 잘 안 쓰는 손은 뭔가 어색하고, 서툴러요. '아니예요! 저 완전 잘해요!' 하는 친구 있나요? 한 명만 앞으로! 네, 여기 목사님이 특별한 간식을 준비했어요! 잘 안 쓰는 손으로 젓가락질 해서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요, 바로 이 "잘 안 쓰는 손" 때문에 사람들 눈에 좀 달라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는 거의 다 오른손을 썼는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거든요. "재는 왜 우리랑 다르지?" 하는 눈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골라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죠? 이름은... 조금 있다가 알려 줄게요!

친구들, 저기 있는 커다란 바퀴 보이죠? 이번 여름성경학교 내내 우리랑 함께할 "사사기 반복 바퀴"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자꾸자꾸, 빙글빙글, 똑같은 걸 반복했어요. 뭘 반복했냐면요. 우리 겨울성경학교 때 배웠던 창세기를 이루는 두 기둥처럼! 사사기 내용으로 우리 같이 배워 볼 거예요! 손동작이랑 같이요. 목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사사기를 이루는 다섯가지 반복!

“하나님을 잊었다”

“원수에게 눌렸다”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이 구했다”

“다시 평안히 쉬었다”

“하나님을 잊었다”

“원수에게 눌렸다”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이 구했다”

“다시 평안히 쉬었다”

사사기를 이루는 다섯가지 반복!

와, 잘한다!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크게!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힘들어서 하나님께 "살려 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먼저 날 잊었잖아. 안 도와줄 거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 주셨어요. 그 구원자를 "사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시 평안해졌어요. 오늘은 그 사사 중 한 명, 아까 말한 원손잡이 이야기예요!

그 사람 이름은 에훗이에요. 다 같이, "에훗!"

그때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의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을 힘으로 꼭 누르고 있었어요. 무려 18년 동안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자꾸 빼앗기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살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 주세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에? 에훗? 원손잡이 에훗?" 그 시대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싸움도, 공부도, 운동도,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에훗은 뭔가 달라 보이고, 약해 보였어요.

친구들, 걸리버 이야기 알아요? 작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큰 사람’은 그들 보기에 이상해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큰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작은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눈이 세 개인 사람들만 있는 곳에 친구들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떡해...재는 눈이 두 개인가봐.. 가족들이 얼마나 슬플까? 아휴..안타깝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놀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에훗의 왼손을 보시고 이러셨을 거예요. "바로 저 손이 필요해!"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선물을 전하러 가게 됐어요. 왕궁 앞에는 무서운 경비병들이 서 있었어요. 경비병들은 무기가 있나 확인했지만, 오른손잡이들이 무기를 두는 쪽만 봤어요. 왼손잡이 에훗 쪽은 생각도 못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놀리던 그 왼손을, 아무도 생각 못 한 특별한 열쇠로 쓰신 거예요.

에훗은 왕 앞에 서서 말했어요. "왕이여, 하나님이 왕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날, 하나님은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쁜 왕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80년 동안 평화가 왔어요. 18년 힘들었는데, 80년 평안! 하나님의 구원이 훨씬훨씬 커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에훗이 세다!"일까요? 아니예요. 에훗은 사람들 눈에 별로 안 세 보였어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크고 힘센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작아 보이는 사람, 달라 보이는 사람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것도 아무도 생각 못 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해 봐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나만 좀 다른 것 같아..." 할 때요. 달리기가 제일 느릴 때.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게 있을 때. "재는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하고 비교될 때.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고, 부끄럽고, 숨고 싶죠.

그런데 오늘 에훗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 줘요.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니까, 여러분의 잘하는 것도, 서툰 것도 다 아세요. 그리고 그걸 "쓸모없어" 하지 않으시고, "내가 쓸 거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이 손 위에, 내가 잘하는 것 하나를 살짝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노래, 달리기, 친구 웃겨 주기... 뭐든 좋아요. 그리고 이번엔, 내가 잘 못하는 것, 조금 부끄러운 것도 하나 올려놓아 보세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해도 돼요. 마음속으로만요.

이번에는 그 두 손을 천천히 모아서, 하늘로 쓱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 이것을 드릴게요."

【다 같이 두 손을 모아 올린다】

잘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이에요. 따라 해 보세요. "내가 가진 특별함과 약점도, 하나님 손에 드리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요. 에훗이 구해 준 다음에 이스라엘은 계속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잊고, 바퀴는 또 빙글 돌아요. 사사들은 잠깐만 구해 줄 수 있었고, 사사들도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큰 계획을 세우셨어요. 언젠가,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구원자를 보내 주시기로요. 그분이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예요! 예수님은 딱 한 번 구해 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진짜 구원자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내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 볼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구호, 손동작이랑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할 거예요. 준비!

사사기를 이루는 다섯가지 반복!

“하나님을 잊었다”

“원수에게 눌렸다”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이 구했다”

“다시 평안히 쉬었다”

“하나님을 잊었다”

“원수에게 눌렸다”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이 구했다”

“다시 평안히 쉬었다”

사사기를 이루는 다섯가지 반복!

최고예요! 이제 아까처럼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선생님 따라 한 문장씩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잘하는 것도, 잘 못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드릴게요."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